



PET 필름 및 NYLON 필름 수급 동향

Market Trend of PET Film & Nylon Film

폴리에스터는 고분자량의 축합중합물로 합성 섬유, 포장용 기록용 필름, 식품 및 화장품 용기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등 우리의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친근한 소재이다. 이 소재는 성형가공용 수지, 필름, 쉬트 등의 형태로 자동차 및 전기, 전자분야, 자기기록, 포장 등의 소재로 응용범위가 매우 넓다.

폴리에스터 필름은 포장용은 물론 오디오 및 비디오 테이프의 자기재료용, 전기재료용, 그래픽아트용, 디스플레이 광학용 등에 사용되는 고부가가치 필름으로 강인성, 유연성, 낮은 흡습성, 낮은 기체 투과성, 내약품성, 탁월한 절연성을 갖고 있으며, 높은 치수 안정성, 다양한 규격 및 두께로 제조가 가능하여 용도가 매우 다양한 제품이다.

국내의 경우, 1978년 SKC가 독자기술로 PET 필름 사업에 성공적으로 참여한 이래, 1985년 제일합섬과 코오롱이 해외기술을 도입하여 참여했으며 1997년 고합(현재 KP케미칼), 화승인더스트리, 효성 등이 참여하여 현재, 코오롱, 도레이첨단소재(舊 도레이세한),

SKC, 효성, 화승인더스트리 등이 사업을 펼치고 있다.

폴리에스터 필름의 수요는 1990년대 중반까지 자기 테이프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였으며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식품 포장용 및 산업용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폴리에스터 필름은 안정성, 투명성, 인쇄성이 우수해 식품 포장용 필름시장에서 PP 필름이나 OPP 필름 등을 대체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LCD 시장의 급속한 성장세를 기반으로 디스플레이용 수요가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무역위원회 미래산업연구소가 발표한 「폴리에스터필름 산업경쟁력 조사」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07년까지 국내 폴리에스터필름 시장은 내수의 경우 중국 등으로부터 저가의 수입산이 유입됨에 따라 포장용 공급이 부진했으나 디지털화 추세에 따른 자기 테이프용 수요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LCD TV 등의 디스플레이용 수요가 급증하여 비교적 양호한 수요 성장을 시현했다. 2008년 하반기 이후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스터 필름이 반덤핑 관정을 받아 수입물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2009년 들어 환율이 약세 또는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시장은 점차 회복세로 전망되기도 했다.

PET 필름을 비롯해, PLA, PEN, PE, PI (SKCKolonPI)을 생산하고 있는 SKC(주)는 13개의 폴리에스터 필름라인을 국내에 보유, 10만톤의 생산능력을 자랑하고 있다. 이 가운데 SKC는 4만톤을 수출하고 6만톤을 국내에 공급했다. 한편 미국에 3개라인을 보유, 총 4만톤의 PET필름을 생산하고 있다.

SKC의 경우 연포장용이 전체의 4%인 400톤 가량이며 열수축 외 특수포장용으로 1,500톤(15%) 가량을 공급하고 있다.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방 산업의 활황세 및 삼성, LG등의 한국 중심의 Global Set Maker 특세에 따른 국내 PET 필름 시장의 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식료품(특히 열수축 중심) 산업에서의 환경무해물질로의 전환에 따른 포장용 특수에 따라 PET 필름 업계역시 동반 활황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런 기대속에 SKC는 내년 1분기 내에 광학용 라인을 1개 완공할 계획이며 그외에도 추가로 열수축, 광학, 산업용 각각 총 3개의 PET 필름 라인을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Global 광학용, 열수축, PVBS용 M/S 1위를 유지하고 Global Top 3를 목표로 포부를 갖고 있다.

현재 국내 13개, 미국 3개로 총 16개 폴리에스터 필름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는 SKC는 내년 완공을 목표로 수원 공장에 1개 라인을 짓고 있으며 2012년까지 수원 또는 진천 공장에 2개

라인을 추가 증설해 2013년까지 19개 라인, 총 20만톤의 생산 설비를 확보함으로써 신속한 증설은 물론 필름 소재의 신규 용도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신재생에너지 전문 그린소재기업으로 거듭날 포부를 갖고 있다.

한편 올해 PET 필름 관련 증감 예상에 대해서는 포장용 5% 이내, 광학용 및 산업용 10~15% 증감을 예상했다.

국내에 폴리에스터 필름 9개라인을 보유, 총 생산능력 113,000톤을 보유하고 있는 도레이세한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올해 4월 세계 정상 첨단소재 기업 달성이라는 기치 아래 도레이첨단소재(주)(TORAY Advanced Materials Korea Inc)로 사명을 바꿨다.

도레이첨단소재는 글로벌 종합화학기업인 일본 도레이그룹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 첨단소재사업을 통해 2020년까지 매출을 3조5천억 원으로 끌어올리고 영업이익률 11%를 달성하겠다는 비전2020도 선포했다.

자기용, 공업용, 포장용, 광학용, 편광이형등 PET 필름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 해 57,100톤을 수출하고 31,300톤을 국내에 공급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전체 PET 필름가운데 포장용으로 10.1%, 자기용 8.3%, 광학산관련 18.4%, 산업용 63.2% 가량을 생산하고 있다.

도레이첨단소재 측은 현재의 PET필름 시장에 대해 "LCD 수요의 증가에 따른 관련 품종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업체에서도 증설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전하고 "증설은 단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포장용, GRA용도 등 일시적인 물량부족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 집

[표 1] PET 필름 수급 동향

(단위 : MT/년)

업체명	라인수	생산능력	공급량	
			수출	내수
SKC(주)	13	100,000(국내)	40,000	60,000
	3	40,000(미국)	40,000	
도레이첨단소재(주)	9	113,000	57,100	31,300
코오롱인더스트리(주)	9	90,000	35,000	55,000
(주)화승인더스트리	1	18,000	4,000	14,000
(주)효성	1	19,000	4,000	15,000

[표 2] 나일론 필름 수급 동향

(단위 : MT/년)

업체명	라인수	생산능력	공급량	
			수출	내수
코오롱인더스트리(주)	2	7,200	2,800	4,400
(주)효성	2	10,000	4,000	6,000

(주)화승인더스트리는 1990년 3월 BOPP FILM공장 준공, 1993년 12월 통기성 FILM 공장 준공했으며 1997년 7월 PET FILM공장 준공, 생산을 시작해 현재 OPP/통기/PET FILM 생산하고 있다.

국내에 폴리에스터 필름 1개 라인을 보유, 총 1만8천톤을 생산할수 있으며 지난 해 수출 4천톤, 내수 1만4천톤을 기록했다. 화승인더스트리가 생산하는 PET 필름은 스템핑포일용(15.3%)과 포장용(15.2)으로 가장 많이 공급, 소비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증착포장용(14.0%), 라미넥스(9.3%), MATTE(8.8%), 스팅글(8.6%)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주요 메이저 PET 필름 생산업체들이 후막중심의 생산체제로 전환되면서, 내수 박막시장의 공급 물량부족 현상 극심화되고 있는 상황 아래, 화승은 박막생산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PET 필름 생산업체 단위당 고정비 증가 등으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상반기 원재료 CHIP이 꾸준히 인상되어, Film 판가 상승이 불가피한 실정인 것으로 전하고 있다. 화승인더스트리는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이 약 27% 상승하였으나, 원재료비가 34% 상승하여 수익성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당분간 지속될 PET 박막시장 물량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생산성극대화 및 합리적인 오더수주를 통해 매출 및 수익성 향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 1985년 PET 필름 1호기를 가동하고 1991년 NYLON 필름 1호기를 가동, 생산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보유하고 있는 PET 필름라인은 9개, 약 9만톤의 생산능력을 자랑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해에는 3만5천톤을 수출하고 5만5천톤 가량을 국내에 공급했다.

PET 필름 가운데 일반 식품포장용으로 절반 이상인 60%가량을 생산하고 있으며 비식품, 생활용품 포장용으로 약 20%, 특수 차별화포장(코팅필름, 수축필름 등)용으로 10%, 그외 기타 공업용 포장재로 10%가량이 소비되고 있다.

PET산업계를 바라보는 생산기업체의 입장은 한결같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역시 전세계적인 Global shortage의 심화, Maker들의 포장용 감산, 광학 및 태양광용 생산량의 증가 등으로, 수요공급 balance가 무너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일반용의 증설은 최근 3~4년간 없었고, 향후에도 미미한 것으로 보여,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망했다.

코오롱 관계자는 올해 PET필름 증설계획은 없다고 전하면서 더욱이 광학용의 증산이 심화되기에 포장용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2011년 국내에서만 총 PET 필름 4 line의 광학용이 증설 계획되어있고, 2015년까지, 국내 약 8개 라인의 증설이 예상되는 것으로 볼 때 광학/IT/환경소재 등의 필름은 지속적으로 성장될 것이고, 포장용의 수급 또한 2012년 이후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한국포장협회 회원사 가운데 NYLON 필름을 생산하고 있는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개의 나일론 필름라인을 보유, 지난 해 2천8백톤을 수출하고 4천4백톤의 나일론 필름을 국내에 공급하기도 했다.

나일론 필름의 경우 2009년 하니웰의 사업 철수에 따른 공급부족현상으로 수급이 어려웠지만, 자강의 인수를 통한 생산 CAPA UP으로 또다시 공급 초과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

게다가 CPL가격의 지속적인 인상과 맞물려, 그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지만 반대로, 해외에서는 여전히 공급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내수/수출 판매량의 조절로 국내 수급 상황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아래 관계자는 PET대비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 등으로, 대체생산품목의 개발 및 차별화 아이템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며, 공급초과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나일론필름의 수요성장율은 올해 약 2% 미만일 것으로 예측했다.

(주)효성은 1996년 나일론 필름 생산을 시작, 2004년 라인을 증설했으며 1997년 PET필름 생산을 시작했다. 현재 (주)효성이 보유하고 있는 PET필름라인은 1개라인, 1만9천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국내에 1만5천톤을 공급, 4천톤은 수출했다. 전체 생산량의 77% 가량을 포장용으로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그외 산업용(S/F)으로 18%, 기타 5%가 용도별 공급 비율이라 할 수 있다. 효성 관계자는 “PET 필름의 경우 광학용필름 수요증가로 선발사들의 광학용 생산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포장용은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면서 “포장용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가격 상승이 전망된다”고 예측했다.

한편 2개의 나일론 필름 생산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효성은 총 생산 1만톤 가운데 4천톤을 수출하고 6천톤을 내수 공급했다.

효성 측은 향후 나일론 필름의 경우 원료가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공급 과잉으로 가격인상이 어려워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